

태극전사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선수단의 지상 목표였던 '10-10(금메달 10개-세계 10위)'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초반부터 최민호(한국마사지)의 '한 판 퍼레이드'와 박태환(단국대)의 사상 첫 수영 금메달, 장미란(고양시청)의 세계신기록 행진 등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한국은 18일까지 금메달 8개, 은메달 9개, 동메달 6개를 수확해 종합 6위에 올라 있다.

이제 남은 기간은 7일. 막판 레이스에서 금메달 2개를 보태 목표했던 10개만 채운다면 세계 10강 유지는 무난하다는 것이 한국선수단의 분석이다.

앞으로 한국에 금메달을 추가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은 우선 태권도다.

남녀 2체급씩 4명의 태권전사를 출전시킨 태권도는 여자 67kg급의 황경선(한체대)을 확실한 금메달 유망주로 꼽고 있다.

남자 80kg 이상급 차동민(한체대), 68kg급 손태진(삼성세원), 여자 57kg급의 임수경(경희대) 등이 출전하는 체급은 워낙



역도 장미란



수영 박태환

사격 진중오

역도 사재혁



유도 최민호

배드민턴 혼복



양궁 남자단체

양궁 여자단체

달성 눈앞

영과 유원철(이상 포스코건설)의 공중제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복싱 69kg급 김정주(원주시청), 역도 남자 무제한급(105kg 이상)의 전상균(한국조폐공사)도 금메달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남은 종목에서 최소 금메달 2개만 추가한다면 국가별 순위에서 10위는 지키는 것은 물론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2위를 탈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보다 순위가 처진 국가 중 8위 러시아(금7, 은12, 동12)와 9위 이탈리아(금6, 은6, 동6)가 육상과 사이클, 카누 등에서 강세를 보여 추월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7위인 일본(금8, 은5, 동7)은 체조 개인전 말고는 특별히 금메달을 기릴 종목이 없어 한국이 아테네올림픽의 부진을 씻고 아시아 2위에 복귀하는 데는 그리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태권도·여자 핸드볼·야구 금빛소식 기대

한국 '금 10개·10위' 아시아 2위 무난할듯

전력이 평준화돼 선봉리 장담할 수 없지만 '중주국'의 체면은 세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기에서는 여자 핸드볼과 야구에서 우

승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8강에서 몇 수 아예인 중국과 맞붙는 핸드볼은 4강에서 맞대결이 예상되는 노르웨

이를 넘어선다면 결승에서 최강 러시아와 금메달을 놓고 일전을 겨루겠다는 복안이다. 또 체조는 평행봉 결승에 출전하는 양태

무매가도를 달리고 있는 야구는 4강 진출을 사실상 확정지은 가운데 막강 투수력을 앞세워 사상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18일 열린 탁구 남자 단체전 3, 4위 결정전 한국-오스트리아와의 경기에서 복식에 참가한 윤재영(가운데)이 승리를 거둔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탁구 윤재영 선수 어머니 김미숙씨 소감

“큰일 해내 정말 자랑스러워요”

“부담 될까봐 전화도 못하고 기도만 했죠”

18일 열린 탁구 남자 단체전 3, 4위 결정전에서 송일고등학교를 졸업한 윤재영(25)이 오상은·유승민과 호흡을 맞춰 오스트리아를 누르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윤재영의 어머니 김미숙(51)씨는 “IMF때문에 집안 형편이 크게 기울면서 제대로 뒷바라지도 해주지 못했는데, 아들이 큰 일을 해내 자랑스럽고 고맙다”며 소감을 밝혔다. 집안 사정상 광주와 충북 제천에 가족들이 떨어져 살면서 얼굴 보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늘 씩씩하게 자신의 몫을 잘해준 아들이다. 김 씨는 “재영이가 부담을 느낄까봐 전

화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기도를 하며 마음속으로 응원을 보냈다”며 “첫 올림픽인 만큼 경험을 많이 쌓고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재영은 광주 대성초등학교 5학년 때 클럽활동을 하면서 처음 라켓을 잡았다. 그러다 소년체전 광주 대표로 나갈 선수가 마땅치 않아 선수를 물색하던 선생님의 눈에 띄어 선수생활을 시작했다. 어머니 김 씨는 “유니폼이 나온다는 얘기에 열심히 탁구 연습을 하던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금당중학교와 송일고등학교를 졸

업한 윤재영은 실업팀으로 진로를 결정, 유승민과 함께 삼성생명에서 선수생활을 해오다 지난 2007년 국군체육부대에 입대했다. 윤재영은 이번 메달로 '미운 오리' 신세를 벗어났다. 국제 무대 경험이 적은 윤재영은 지난 2월 대한탁구협회의 과별 싸움 속에 치러진 대표 선발전에서 예상을 깨고 이정우를 따돌리고 대표팀에 승선했다. 이정우는 오상은과 복식 호흡을 맞춰왔던 만큼 윤재영 선발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새로 결성된 윤재영-오상은조는 준결승을 제외한 5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하면서 그동안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말형’ 오상은 투혼 빛났다



광주 송일고 출신 윤재영도 한 몫 ‘강호’ 오스트리아에 3-1 역전승

한국 남자탁구가 힘겹게 귀중한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국은 18일 베이징대 체육관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단체전 3위 결정전에서 오스트리아를 맞아 오상은(KT&G)과 유승민(삼성생명), 윤재영(상무)이 선전, 3-1로 승리했다. 준결승에서 중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 패자전으로 밀려났던 한국은 홍콩과 오스트리아를 차례로 누르고 동메달을 건졌다. 한국은 ‘말형’ 오상은의 단·복식에 걸친 활약이 빛났다. 유승민 코치는 ‘간판’ 유승민 대신 페이스가 좋은 오상은을 1단식에 출격시켜 2003년

파리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 베르너 실라거와 맞붙게 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오상은 카드’는 적중했다. 오상은은 한 박자 빠른 공격으로 실라거의 허점을 파고 들었고 실라거는 오상은의 날카로운 백핸드 드라이브에 맥을 추지 못했다. 그러나 오상은은 첫 세트 득점을 쌓아 10-6 세트 포인트를 만들고도 방심한 탓에 실라거에게 연속 실점하더니 듀스에서도 잇단 범실로 기선을 내졌다. 세트 스코어 0-1로 뒤진 오상은은 2세트 들어 마음을 다 잡고 드라이브 공세를 펼쳤고 3-4점차 리드를 유지한 끝에 11-5로 여유있게 이겨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기세가 오른 오상은은 여세를 몰아 3, 4세트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밀어붙여 3, 4세트를 따내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하지만 아테네 대회 금메달리스트 유승민(세계랭킹 8위)이 세계 47위의 ‘복병’ 로베르트 가르도스에게 발목을 잡히는 이변이 일어났다. 유승민은 1세트 6-2로 앞서고도 가르도스의 맞드라이브 공세에 휘둘러 듀스를 허용한 뒤 끝내 12-14로 졌다. 2세트도 통틀리 대결에서 밀려 8-11로 내줬다. 3세트 듀스 접전을 13-11로 이겨 반전시키는 듯 했지만 4세트를 5-11로 졌다. 뼈아픈 1-3 패배였다. 다행히 3복식에 나선 오상은-윤재영 조가 가르도스-천웨이싱 조를 3-0으로 완파했다. 오상은은 지난해 11월 여겨 수송 공백을 딛고 단·복식 승리를 이끌어 승부의 물꼬를 틀었다. 이어 4단식에 나선 유승민은 천웨이싱을 3-0으로 제압, 2단식 패배 부진을 털어내고 동메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이겼지만 너무 힘드네”

대만에 8-0 앞서다 9-8 신승



야구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대만을 잇따라 물리친 한국은 남은 쿠바(19일), 네덜란드(20일)전 결과와 관계없이 상위 4개 팀이 겨루는 준결승에 오르게 됐다. 이기긴 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였다. 1회 초 7점을 뽑아낼 때만 해도 쉽게 경기가 풀릴 듯했다. 이종욱과 정근우의 연속 내야 안타에 이어 이승엽의 볼넷으로 1사 만루 찬스를 만든 한국은 이대호, 이진영의 적시타와 상대 수비 실책을 보태 4점을 뽑은 뒤 0영민이 3점 홈런을 터뜨려 7-0으로 달아났다. 초반 기선을 잡은 한국은 2회에도 이대호의 적시 2루타로 1점을 보태 8-0으로 앞섰

다. 1승3패로 탈락 위기에 몰린 대만도 그냥 주저앉지 않았다. 대만은 2회 말 이예권장의 적시타로 1점을 만회한 데 이어 린즈성이 한국 우익수 이진영의 수비 실수 때 홈을 밟아 8-2로 쫓아왔다. 한국팀이 흔들린 건 5회. 4회까지 6안타, 2실점으로 호투하던 봉중근이 5회 말 로어구 어후이와 스즈웨이를 벌넷, 평정민을 안타로 내보내며 1사 만루 위기를 맞았다. 지왕 지시엔의 중전 적시타로 2점을 내준 한국은 린즈성의 좌전 적시타 때 좌익수 김현수의 수비 실수까지 겹치며 2점을 실점, 8-6으로 쫓겼다. 6회말에는 두번째 투수 한기주가 또 난조에 빠져 2실점, 기어코 8-8 동점을 허용했다. 하지만 한국은 저력이 있었다. 7회 초 이대호의 볼넷, 이진영이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 찬스에서 강민호가 중전 적시타로 귀중한 결승 타점을 올렸고, 7회 말 2사 3루에서 한기주 대신 등판한 권혁과 윤석민이 뒷문을 틀어막아 승리를 지켰다. 한편 일본은 캐나다를 1-0으로 물리치고 3승2패로 4강 진출 희망을 밝혔다. /연합뉴스



18일 베이징 우커송야구장에서 열린 올림픽 남자야구 예선 한국-대만 전 7회초 무사 1, 2루 8-8 동점 상황에서 강민호가 적시타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